

# '봄철 걷기여행, 강천산이 최고'

### 순창군, 가족단위 관광객 등 1000여명 참여한 걷기대회 '큰 호응'

순창군 강천산이 봄 가장 걷기 좋은 관광지로서 이름을 알렸다.

군은 지난 21일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1,000여명이 참여해 형형색색 봄꽃과 초록으로 물들고 있는 강천산을 체험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걷기대회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도 참여해 강천산이 남녀노소 누구나 걸으며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임을 알렸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순창군과 하이코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장애인연합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아모레퍼시픽, 대

한적십자회 순창지부 등이 후원했다.

걷기대회 코스는 강천산 매표소에서 병풍폭포 강천사를 거쳐 현수교 구장군폭포까지 이어지는 왕복 5km 코스였다.

군은 정국에서 걷기대회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강천의 풍경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추장을 활용한 중식을 제공하고 어쿠스틱 밴드를 초청해 흥겨운 음악으로 흥을 돋웠다.

또 걷기대회 코스 중간에 대형 판넬을 활용해 순창에 대한 퀴즈를 풀수 있도록 해 참여자들에게 순창도 알리

고 색다른 재미도 선사했다.

이외에도 순창로컬푸드 맛보기, 전북관광 투어패스 증정, 강천산 구름다리 드론 촬영 등도 진행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군은 군의 대표관광지 홍보 및 전북도 토탈관광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전북도 시각장애인 도서관 송승태 관장은 "강천산을 직접 걸어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숲이 아름답고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아 좋은 추억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영철 기자

# 임실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활발

### 군, 인터넷 쇼핑물 교육... 내달 17일까지 4주간 진행

임실군이 순창군과 남원시와 함께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쇼핑물 교육을 실시 중이다.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2016년 임실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 중이며, 3개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농촌산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순창일랜드, 남원하브랜드의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주로 활용해 공동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호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인터넷 쇼핑물 교육은 농촌산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교육은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관으로 임실군·순창군·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으로 한 MICE산업 관련 쇼핑물 교육이다.

도내 MICE산업 참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품목에 있어 매

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보다 간편하게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구매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은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상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인 농업인들에게 쇼핑물 교육을 실시해 상권 및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생활권을 이루는 순창군과 남원시와 함께 '임순남'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협력의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 왔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 MICE산업과 더불어 도농인력지원센터와, 산모보건의원센터 등 군민 소득 제고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에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경찰, 베스트 및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김창호 경사 등 2명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21일 2017년 2차 베스트 순창경찰로 근무하고 경사 김창호, 쌍치파출소 경위 박명기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베스트 순창경찰로 선정된 2명에게는 자체 제작한 베스트 순창경찰 인증 메달과 1부2할의 포상휴가, 부상품 등을 수여하고 모범공무원 선발시 우대하는 특전을 부여 했다.

경무과 김창호 경사는 '직인복지 및

소통·화합 조직운영 기여 유공', 박명기 경위는 '적극적인 문안순찰로 범외예방 기여 유공'으로 각각 공로를 인정받아 베스트 순창경찰에 선정되었다.

또한 생활안전교통과 박창호 경위는 112현장대응능력 강화 유공, 남제파출소 임종필 경위는 '17년 1분기 베스트 순찰팀 선정 기여 유공, 정보보안과 이기찬 경위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다.

신일섭 서장은 현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베스트 순창경찰과 업무유공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치안활동이 되도록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순창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남원시 전북권 첫 모내기 실시

### 곡우 맞아 계절 영농준비에 '구슬땀'

곡우를 맞이한 계절에 농촌 들녘에서는 논·밭갈이 작업과 농자재 등 영농 준비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적 특성상으로 전국에 '영농 1번지'로 자리잡은 가운데는 첫모내기를 이백편 초촌마을 앞물 이기조씨 논 1.3ha에서 실시 하였으며 이는 일반농가보다 1개월 앞서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번에 이양한 조생종벼는 지난 4월초에 과중 육묘작업을 거쳐 모내기를 실시 하였고, 추석 명절에 맞춰 9월초~중순경에 수확 선물 용이나 제수용 햅쌀로 유통 일반벼보다 약 15~20%정도 높은 가격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유통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2017년 벼 재배계획 8,905ha 중 윤농, 인월, 아영, 산내 등 고령지 2,300ha, 중령야부 6,605ha의 벼를 재배 6만9,000여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적정 생산을 위하여 논에 조사료,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밭맞춤은 쌀 생산을 위하여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10a 당 질소질비료 7kg이하 사용과, 평당 40주이하 식재와 고령지와 중령야부의 지대별로 적기에 이양 단체에 당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AI 청정지역 시수 행정력 집중

남원시가 조류독감(AI) 청정지역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지난 19일 조류독감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방역대책본부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3개 협업부서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축산과 주관으로 AI 방역대책본부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AI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5월 말까지는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소 5개소에 대해서도 당분간 현 상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남원을 AI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지키기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계속해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환주 시장은 모든 가금농가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그동안 축종별 SNS를 구축하여 실시간 질병발생상황 전파 및 농가별 소독실시 여부를 파악하여 차단방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접지역인 구례·곡성 오리농가, 순창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군 제독차량까지 동원하여 한층 더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이와 함께 AI 차단을 위해 가금 일시이동중지과 전 가금농가 현장 소독실제 점검을 각각 4회 실시했다.

소독약품 14,775kg, 생식회 2,300포도 공급해 적기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금류 소비촉진에도 힘을 쏟았다. 시청 구내식당에 가금류의 안전한 식용요령을 알리고, 주기적으로 식단으로 제공했다.

한편, 국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지금은 두 번째인 주의 단계이다.

심각단계는 지난 해 12월 15일 발령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치유농업 박람회 '활짝'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이 부산에서 열린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세뺌을 활짝 띄웠다.

군은 지난 20일 부산도시농업 박람회장 내 백산홀에서 열린 도시농업 국제 심포지엄에서 '건강 장수발효 순창! 치유농업이 올트다'라는 주제로 대서성 증후군 중점 치유농업 추진 배경과 치유농장 19개 농가를 육성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치유농업은 농업의 치유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의 농촌 생활에서 건강한 자연발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얻어가는 6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특히 19개 치유농장 육성은 사업의 핵심이다. 치유체험형, 교육체험형, 치유음식형, 작물공급형 등 4개 유형의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유의 빛'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통합마케팅, 발효 5미 천연소스를 이용한 치유음식개발,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치유농장 육성을 중심으로 농업의 신 영역을 개척하는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순창=이영철 기자

## 임실군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임실군의의회가 임실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찾아가는 등 현장중심 행정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임실군의의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7개소를 찾아가 주요사업 및 군정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임실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임실치즈 테마파크 노티나무이식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 ▲사산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전라북도립사적장 등 7개 중점 사업장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분노 관리시스템 교육

임실군은 '가족분노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청사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했다.

가족분노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과정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올해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양돈농가, 가족분노 수집·운반업체, 액비실포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현두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전자인계서 작성, 등록 방법 등의 사용자 교육에 중점을 뒀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